

국토교통부, ‘고향 가는 길 생활방역 · 교통안전과 함께’

- 1·2차관 대광위원장 추석 앞두고 특별교통대책 주요 현장 점검 · 소통 행보 -

□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7일(금)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추석 명절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
○ 황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추석대비 버스터미널 방역대책과 고속버스 교통수송대책을 보고 받은 후, “코로나-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이야말로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고향·친지 방문과 여행을 최소화하고,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되,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하여 교통 방역태세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특히, 황 차관은 국민들의 즐거운 명절과 여행길의 안전을 위해 고속버스의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“장시간 운전에만 따른 과로, 과속,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한편, 이날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주요 철도역사인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○ 먼저, 서울역을 찾은 윤 차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등을 보고 받고 방역현장을 둘러본 뒤 “코로나-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

- 연휴기간 중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철도이용을 통한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"을 당부하였다.
- 청량리역을 찾은 백승근 대광위원장은 “이용객들이 역사 및 열차 내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"을 요청하였다.
- 이어, 백 위원장은 “청량리역은 GTX B·C 노선이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광역교통거점으로서, 광역교통 거점이라는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청량리역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6일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.

2021. 9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